

인쇄후가공기기 한국시장 넘어 세계무대에서 '펼 펼'

영화 '빅(Big)' 을 보면 13세의 개구쟁이 소년 조슈(톰 행크스 분)는 어느날 축제에 놀러갔다가 '줄타' 라는 기계에 어른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빈다. 다음날 조슈는 정말 30세의 어른으로 변한다. 커진 아들을 본 어머니가 강간범으로 알고 칼을 들고 덤벼들자 주인공은 어쩔 수없이 집을 나오게 된다.

일자리를 찾다가 우연히 유명 완구회사의 전산과 말단 직원으로 취직한 조슈. 그러나 자신이 기획해낸 장난감 아이템들이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는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게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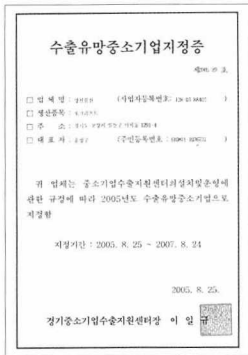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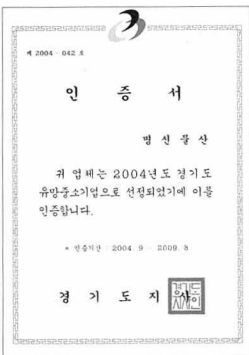
다. 이유는 단 하나,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장난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편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라는 뜻의 한자성어인 '역지사지(易地思之)' 는 기업과 고객의 관계에서는 통용되기 힘들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연구해야 하며, 소비자는 그 결과물인 상품과 서비스를 누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의 사활은 경쟁사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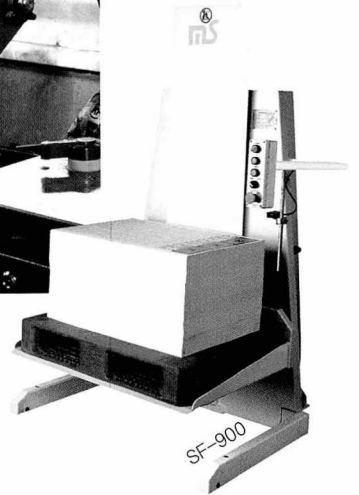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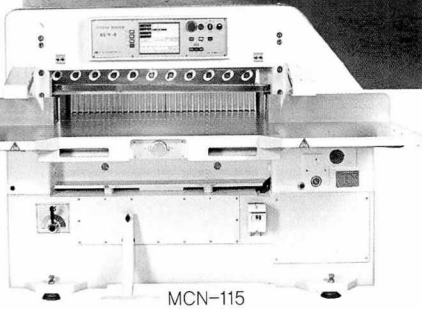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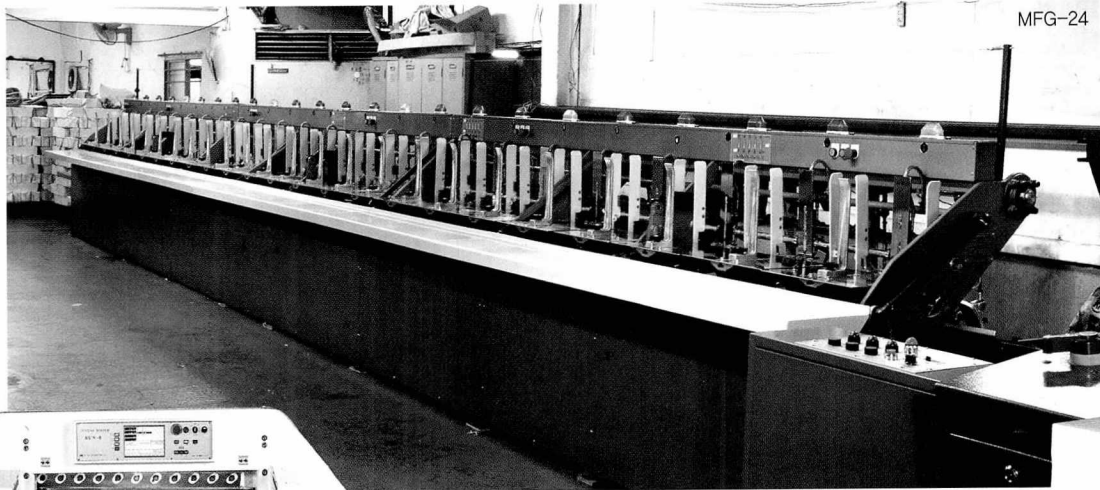
데 달려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제책용 기계 전문 제조업체인 명신물산은 인쇄기기를 운전하던 기사 출신인 윤명구 사장이 설립한 회사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요구와 불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밀천삼아 창업

명신물산의 윤명구 사장은 한때 인쇄사의 평범한 직원이었다. 업무 특성상 제책기계를 다루며 각 브랜드별 기종에



명신물산이 보유한 각종 등록증과 인증서들



대한 장·단점을 알게 된 것은 당연한 일. 이런 그에게 기계 도입을 위해 조언을 부탁하는 주변 사람들의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실제로 기계를 조작하면서 보고, 느낀대로 말해줬을 뿐인데, 일부 기계 제조업자들로부터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직접 만들면 될 것이냐”라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창업의 계기가 됐다. 평소 자신이 느끼고 있었던 제책

용 기계들의 불편함을 스스로 해결해 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났다.

1989년 윤 사장은 명신자동기계라는 상호로 후가공 인쇄기계 제조업에 발을 디게 된다. 당시 윤사장의 나이는 30세. 문래동 빗물펌프장 부근의 허름한 건물을 빌려 직원 한 명 없이 홀로 시작한 사업은 약간의 주문 확보와 오로지 현장에서 갈고 닦은 자신의 경험을 믿고 벌인 도전이었다. ‘명신자동기계’라는 상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은 ‘후가공 기계의 자동화’였다. 수동, 반자동, 기계식이 대부분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그는 전자, 컴퓨터를 기계와 접목시켜 2~3가지의 공정을 연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했다.

기계분야에 대한 자동화 개념이 전무한 상황에서 윤사장이 만들어낸 제품들은 단시간 내에 시장의 호감을 얻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처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산업용 장비에 적용되는 반도체가 미비한 상황에서 사무용(O.A) 반도체를 기계에 도입한 것이 화근이 됐다. 예상치 못한 기계 트러블이 발생, 오동작을 일으키면서 항의가 이어졌다. 잘나가던 제품이 침체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원인 분석에 여념이 없던 그에게 옆친데 덮친격으로 IMF 한파가 불어닥쳤다. 수금이 어려워지면서 자금이 쪼들리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이내 한계상황에 몰리게 됐고, 회사는 부도가 났다. 열정과 경험을 밑천으로 시작한 첫 도전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겪었던 한 번의 실패

명신자동기계가 만들어낸 초기 제품은 접지기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후가공

위기를 기회로, 명신물산의 탄생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윤 사장은 제품 결함 원인 분석에 착수

했다. 산업용 반도체의 도입으로 기존의 문제점을 말끔히 해결했다. 동시에 그는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도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생각해 낸 것이 바로 모든 산업현장에서 쓸 수 있는 범용화 장비의 개발이었다. 제책용 전문기계만으로는 변화가 심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윤 사장은 인쇄·제본 뿐만 아니라 전자·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소형 지게차, 이동대차인 전동스태커와 같은 물류장비 개발에 착수했다.

1998년 1월 그는 다시 명신물산을 설

립, 재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먼저 명신자동기계 시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술개발·연구에 매진했다. 그 결과 탄생한 컴퓨터제단기는 같은 해 9월 한국산업안전공단 설계 및 성능검사에서 국내최초로 합격승인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어 2000년에는 이동대차인 전통 스태커를 개발하고, 2002년에는 정합기 자동날장 검출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거침없는 연구·개발 성과가 이어졌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2003년에는 마침내 ISO9001인증을 획득하게 됐

고, 2004년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인증 'S' 마크를 획득하는 등 기술력과 제품 신뢰도를 점차 높여갔다. 같은 해 8월에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안기도 했다. 이 모두가 매년 총 매출액의 10% 이상을 R&D부문에 꾸준히 투자해온 결과다.

사용자를 최대한 고려한 편리성이 장점

명신물산은 온라인 구성이 가능한 전자동 삼면제단기와 정합기, 무선 컴퓨



인터뷰 | 윤명구 대표

“편리성과 안전성에 만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너무 많다. 해외를 다니면서 몸으로 직접 느낀 교훈이다. 다른 하나는 직원들에게도 항상 강조하지만 프로의식을 가지라는 것이다.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근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어 한마디 변변찮은 내가 혼자 해외를 돌아다니며 시장을 개척했다고 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하면 된다. 때론 '악바리 근성'도 필요하다.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 인쇄관련 매체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명신물산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직접 작업현장에서 기계를 운전해 본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프린팅코리아도 항상 독자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들의 지적 금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익한 고급 정보의 전달에 힘써 주실 바란다. 양질의 기사들이 독자들에게 많이 읽혀지면, 이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낳아 우리 인쇄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이동스태커에 자동으로 물건을 집어 실 수 있는 로봇기능을 결합한 '스택로봇'을 개발중에 있다. 현재 50%정도 진행됐으며, 빠르면 올해 안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기계에 대한 성능이 가장 중요시돼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비들이 고급화되고 기술력 또한 상향평준화된 현재에는 보다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하며, 인체공학적인 제품이 주목을 끌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농담삼아 건네는 말이 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과 결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만큼은 꼭 다시 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만큼 내 일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때론 위기상황도 겪었지만 한 순간도 내 선택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 명신물산 제품만의 장점이라면.

◎ 반문해 보고 싶다. 어떤 자동차가 가장 좋은 자동차라고 생각하는가. 적어도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준다면 그 차는 좋은 차다. 가격은 그 다음 문제다. 제책 전용장비를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든 제품들은 전문가용 기계가 아니다. 작업자의 몸을 편하게 해주는 쓰기 쉬운 장비, 그것이 명신물산이 추구하는 목표다.

◎ 경영철학이 있다면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말했다. 비록 지금은 기업가로서 도덕적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됐지만 이 말에 100% 동감한다. 아니 이것도 부족하다.



지난해 명신물산이 참가한 Asia Pack Print05

터 재단기를 비롯 이동대차인 전동 포크리프트(전동 스택터), 반전기, 테이블 리프트, 팔레트 트럭, 보조장비인 높낮이 조절 작업대 등 완벽한 컴퓨터 설계와 최신 기술로 제작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컴퓨터 재단기인 '터치스크린' (MCN-II 시리즈)은 국내최초 한국산업안전공단 설계, 성능검사 합격품으로 정반의 세로홈을 제거하고, 더블스크류를 장착했다. 이 제품은 모든 작동지시를 한글화해 누구든지 쉽게 조작법을 익힐 수 있다. 자기진단 프로그램으로 진단과 감시가 전자동으로 이뤄지며, 재단방법을 그래픽화해 초보자도 특수한 절수를 보고 재단하는 재단순서 그래픽이 가능하다. 광전관의 안전장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사 합격품만을 사용, 안전도를 높였으며, 재단작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추출되고 추출위치는 작업자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조절할 수 있다.

내구성 높은 주철을 사용한 컴퓨터 재단기(MCN-I 시리즈)는 재단이 완료된 재단물이 자동으로 작업자 앞으로 밀어 내려져 안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설계됐다. 또한 컴퓨터에러 발생시에는 카세트 교환방식으로 즉시 응급처지가 가

능하다. 백게이지의 볼스크류는 독일 스타사의 초정밀 제품만을 사용, 장시간 사용해도 정밀도가 항상 유지된다.

전자동 삼면재단기인 MST-A는 컴퓨터에 책자크기를 입력시켜 언제든지 원하는 치수로 일정한 작업이 이뤄진다. 모든 작동장치들은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전자동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숙련공이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작동시킬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무선철기와의 온라인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천지치수 표시가 1:1로 표시되어 치수표시를 2배로 환산했던 종전기종에 비해 편의성이 높아졌다. 유럽규격인 CE부품을 장착한 전동스택터는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짧은 회전반경(1.2M)이 특징이다. 인체공학적인 구조로 부드러운 출발, 상승, 하강을 할 수 있고, 복부 안전스위치 작동시 즉시 200mm 자동후진이 가능하며 모든 안전을 감지하는 컨트롤러(영국상해보험가입)가 장착돼 있다.

이밖에도 자동정합기계인 MFG 시리즈, 자동침입기계인 MF 시리즈, 전동 팔레트 트럭, 무압력 반전기 및 높낮이 조절 작업대(SF시리즈)등도 뛰어난 내구성과 편리함을 갖춘 제품들이다.

국내·외 시장 판매실적 호조

명신물산에서 생산·제조된 체책기계의 80%이상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주요 시장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이다.

윤명구 사장이 직접 일년에 90일 이상 해외를 돌아다니며 판로를 개척한 결과다. 초창기에는 무려 1년에 15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금도 1년에 적어도 10번 이상은 해외에 나가 시장 동향을 분석한다. 반면 소형 지게차와 스택터 같은 물류장비는 대부분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편리함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품들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는 국내 인쇄사들도 급격히 늘어났다. 작년 한해동안 이 회사는 알토란 같은 실적을 올렸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명 인쇄사들과 잇따라 납품 계약을 성사시켰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의 인쇄사인 보진재와 재본분야에서 7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우제책사는 물론 진흥카렌다, 타라그래픽스, 송운사, 시사영어사, 법문사 등 굴지의 인쇄업체에 기계를 납품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치원기자 kcw@print.or.kr